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시대 가정도 직장도... 곳곳 혼란

광주·전남 62만명...5명 중 1명 감염
재택치료 늘어 40% 가족간 전파
회사·사업장은 인력난에 아우성

27일 자정 기준 광주·전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2만명을 넘어섰으며 광주·전남 지역민 5명 중 1명은 감염됐다. 좀처럼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확진자가 매일같이 쏟아지면서 지역 전체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는 사실상 정부의 의료체계에서 방치된 가운데 자택에 머물며 통증을 호소하고, 비확진자는 확진자들의 일과지 때때로 곳곳에서 우려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넘쳐나는 확진자-식사 함께 하는 가족간, 회사 동료간 감염이 기본=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도 연일 폭증하며 가족간 감염도 확산세다. 광주·전남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 감염되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10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이 작간접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하는 셈이다.

가족 간 전파가 40%에 이르고, 동거 가족이 시차를 두고 확진되는 '밀레이 감염'이 늘고 있어 재택치료가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주부 A(32)씨는 2주전 파로 사는 시어머니가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다녀가신 것이 격정돼 신속항원 검사 받은 끝에 가족 4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며칠이 지난 뒤 아들이 콧물 증상을 보였으나 자가키트 상 한줄이 안심했지만 지난 17일 아들에게 고열이 계속 돼 소아과를 방문한 결과 양성이었다. A씨는 그동안 가족들이 격리도 없이 마스크도 하지 않은채 아이들과 생활했다는 점에서 불안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음성이 나오면서 동선을 분리하고 가족들이 거실과 각 방에서 따로 자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는 목이 아프고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발현된 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어 모든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초등생 자녀가 확진돼 함께 격리 중인 B씨(43)는 "한 집에서 가족이 공동 생활하고 있어 사실상 격리하기도 힘들고 격리 기간이라도 짧게 하



27일 오전 광주 남구 무등시장 주변에서 민간 방역업체 직원이 소독기를 이용해 방역작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려고 그냥 붙어있다"고 토로했다.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가족이 한 번에 걸리는 게 낫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0.18% 수준으로 델타 변이 치명률인 0.7%보다 낮지만 계절독감 치명률인 0.05~0.1%에 비하면 2배 수준이라는 점 때문이다.

◆"일 할 사람이 없네", 회사·식당·사업장 등 인력난 비상=코로나 확진세가 지속되면서 비확진자들이 확진자들의 업무까지 맡으면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마다, 사업장마다, 가게마다 코로나로 아픈 사람, 일이 많아 지친 사람들로 목소리가 날 지경이다. 확진으로 인해 '알바생'이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는 알바생이 확진에 걸리면서 일을 그만뒀다. 식당 주인 C(56)씨는 결국 알바를 구하지 못해 매일 고군분투 중이다. C씨는 "취업준비중인 자녀와 일을 마치고 온 남편까지 식당일을 거들고 있지만 혹시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D회사는 최

근 코로나확진자가 급증해 전체 인원 30여명중 10여명이 재택치료를 들어갔다. 결국 남은 20명이 10명의 업무를 분담했지만, 업무 성격이 조금씩 달라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버거운 실정이다. E(39)씨도 최근 동료의 확진으로 두 명분의 일을 추가로 하고 있다. E씨는 "당장 일을 해야 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에게 일을 하나하나 물어서 하고 있지만, 업무 효율성이 바다"이라면서 "셋이서 맡던 일을 혼자 해야 해 업무가 몰릴 때는 울고 싶을 정도"라고 했다.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코로나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하는 사람의 입장도 편지 않다.

최근 감염돼 며칠째 쉬고 있는 F(31)씨는 "얼마나 정신 없는지 뻔히 아는 처지에 동료가 며칠째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집에서 쉬어도 동료와 업무 생각이 불편하니 차라리 아파도 집에서 일을 하고 싶지만 몸이 아파 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0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독 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창조의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경력기자 0명	2차 심층면접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마감	4월 4일(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4월 5일(화) 개별통보
심층면접	4월 7일(목)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4월 11일(월)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양식 광주일보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19일만에...문 대통령·윤 당선인 오늘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한다. 이번 회동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형식으로 이뤄지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관련기사 3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같은 시간에 각각 브리핑하고 이같은 소식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이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올라 의미있는

소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으로는 가장 늦게 이뤄지는 것으로, 이제까지 '최장 기록'이었던 1992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YS) 당시 당선인 간 18일 만의 회동보다 하루가 더 걸린 셈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첫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4시간 앞두고 회동이 급작스레 무산됐다.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 행사 문제와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을 둘러싼 이견이 회동 불발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청정해남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해남미소
해남군

땅끝이라 더 깨끗합니다 해남이라 더 건강합니다

신규회원 가입시
3,000원
WELCOME COUPON

구매후기 이벤트 추천
농수산물 및 기념품 증정

기획상품 할인행사
50%까지 할인
DISCOUNT EVENT

문의 080-859-1100 | www.hnmiso.com